

■ 법률 칼럼

# 종교이민 - Part 1

종교이민의 경우는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민서비스국(USCIS)에 I-360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I-360이 승인된 이후에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I-360 승인이 거의 2년 가까이 걸리고 있어서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많은 목사님들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먼저 종교이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취업 2순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컬럼에서 2순위로 교회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주의점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 간 사역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그 교단의 일원이었던 되지만,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사역이 유급이었으며 또 중간에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시 해당 직무에 대한 이민서비스국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 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최근 변화 기록 등을 자세히 검토합니다.
3.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

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 신청에서와 같이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교단, 행할 직무, 그리고 신청자의 신상 자료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후원하는 종교 단체는 신청자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과 구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최근 이민서비스국은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심사할 때 종교 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까다로운 추가 서류를 종종 요구합니다.

### ※ 교회의 취업 2순위

많은 분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 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 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 단체도 사실상 고용주이기 때문에 일반 취업이민 절차를 거쳐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1단계인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청원(I-140)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종교 단체가 일반 고용주로서 일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 할 경우에 이민국은 종교 단체도 일반 고용주와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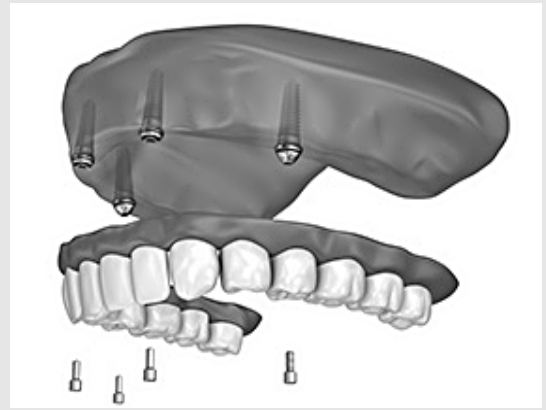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 임플란트 틀니

▶ 1379호에서 이어 집니다.

임플란트 오버덴 처는 임플란트 자체가 치아 뿌리 역할을 하도록 식립한 후 전통적인 치료법에서 사용되는 장치들을 임플란트와 틀니에 삽입하여 틀니의 유지력과 지지력을 얻게 됩니다.



▲ 임플란트 틀니. 사진=shutterstock

똑딱이 단추와 작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똑딱이 단추의 돌출부위가 임플란트와 연결되고 이에 상응하는 장치가 틀니에 삽입되어 틀니 장착 시 이 두 장치가 결합되어 유지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틀니만 있을 경우 온전히 잇몸과 뼈가 음식을 씹으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감당했는데 임플란트 지지 틀니를 장착하는 경우 일부 스트레스를 임플란트가 받아주어 저작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임플란트가 심겨진 부위 조직에 기능이 가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도 뼈가 녹지 않아 지지조직이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통해 저작시 틀니의 움직임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완전틀니에 비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개수도 완전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에 비해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좋은 가격에 임플란트의 잇점을 살릴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소 임플란트 식립 개수는 아래턱이 2개 위턱이 4개입니다. 이는 아래턱 뼈와 위턱뼈의 골밀도 차이

와 치열궁의 크기 차이로 인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임플란트만 경제성 때문에 오버덴처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 최소 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틀니 제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 외에 단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틀니 자체의 제작이 통상적인 틀니 제작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틀니에 심겨진 치아가 닳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틀니 자체가 깨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적은 수의 임플란트가 지지하다보니 큰 저작력을 가진 분이나 상대 대합치가 자연치인 경우 적용하기 쉽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구강 검사 후 임플란트 틀니의 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해 한 다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 Home Remodeling